

FOLLOWER 2

Learn from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Follower!

< 주제성구 >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꿈과 어긋나, 하나님이 꿈꾸셨던 모습과 떨어진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Follower’로 부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부릅니다. 이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초대입니다.

우리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교회와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걸음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로 믿고 따름으로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 봅시다.

두 번째 걸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방식을 배우고 익혀봅시다. 훈련이 몸에 익

은 사람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걸음은 교회와 세상으로 보냄 받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봅시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Leader’인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Follower’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Follower’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계로 이끄는 또 다른 ‘Leader’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계로 이끄는 또 다른 ‘Leader’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Follower’와 ‘Leader’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징

1) 양육

<Follower>는 예수님의 제자 됨을 목적으로합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름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배우고,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교재를 통해서, 교회와 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나눔

<Follower>에서 제자 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나눔입니다. 나눔은 경청과 응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별 메시지를 듣고, 이해와 감정, 의지로 응답하며 살도록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요구하기보다 열린 질문을 통해 자기 성찰과 제자의 내면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동체가 이 과정을 함께 나누며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에 대한 자기 응답만 아니라, 타인과 나의 생각을 나누고, 경청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가길 기대합니다.

다양한 자기 표현을 위해 ‘I(image)카드’, ‘E(emotion)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I 카드’는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삶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E 카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교재에 제시된 질문을 넘어 다양한 나눔을 위해 'Q(question)카드'를 준비했습니다.

'Q 카드'는 다양한 질문이 담긴 카드입니다.

제자 됨으로의 여정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해가길 기대합니다.

3) 단순

<Follower>는 구성의 단순화를 추구했습니다. 교회와 학교의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필요한 소그룹 양육과 나눔에 집중하기 위해 각 과를 단순하게 구성했습니다. 『함께 기도(INTRO)-나눔(OPENING)-배움(MEETING)-나눔(FOLLOWING)-함께 기도(OUTRO)』라는 구성을 통해 기도-나눔-배움이 순환되도록 했습니다. 기도, 나눔, 배움을 통해 집중된 양육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용법

<Follower>는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활용하는 교재입니다. 매주 한과씩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제자도'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단, 지도자는 미리 교재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본 교재의 각과 진행 순서는 『함께 기도(INTRO)-나눔(OPENING)-배움(MEETING)-나눔(FOLLOWING)-함께 기도(OUTRO)』입니다.

- INTRO의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 OPENING의 가벼운 삶의 나눔을 통해 마음을 엽니다.
- MEETING의 내용을 보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룹니다.
- FOLLOWING에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나눔을 가집니다.
- OUTRO의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며 과의 막을 내립니다.

기도로 들어가, 마음을 열고,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함께 기도로 나오는 과정을 익힘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본적인 틀을 경험하길 기대합니다.



해당 과와 관련된 기도문입니다.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읽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닫혔던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과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 혹은 서로를 알아가는 질문이나 게임을 통해서 마음 문을 열고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본 교재를 위해 준비한 Q카드, I카드, E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의 주제에 맞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읽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끝에 소개된 ‘두 문장’을 통해 메시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과의 메시지를 삶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본 교재를 위해 준비한 Q카드, I카드, E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읽으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설 계

1권은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 2~3권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심, 4~5권은 교회와 세상으로의 보내심입니다.

1권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과 방법을 살펴보고, 각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는 결단으로 인도하며, 이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2권은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안내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알아갑니다.

3권은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알아가도록 안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방법을 알아갑니다.

2~3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인도합니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우고 익힙니다.

4권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교회에 대해 알아가도록 안내합니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지,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하는지 알아갑니다.

5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갑니다.

4~5권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동일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다른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익힙니다.



2권

Learn from Jesus

- | | | |
|----|-----------------------------------|------|
| 01 | 배워야 산다 마 5:1 | ● 09 |
| 02 | 나 보통 아니야 요 1:14 | ● 13 |
| 03 |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요 14:9-10 | ● 17 |
| 04 | 삼위일체? 자, 들어봐 마 3:16-17 | ● 21 |
| 05 | 온 세상의 주인이 있어 요 1:1-3 | ● 25 |
| 06 | 미안, 할 수 없는 게 없어 마 19:26, 눅 1:37 | ● 29 |
| 07 | 의로운 사람을 찾고 있니? 히 4:15 | ● 33 |
| 08 | 염려 마, 공정하니까 마 16:27 | ● 37 |
| 09 | 사랑이 여기 있어 롬 5:8, 요일 4:10 | ● 41 |
| 10 | 걱정 마, 하나님이 돌보시니 요 10:10 | ● 45 |
| 11 | Mission complete! 눅 22:29-30 | ● 49 |

세 가지 카드 만나기



옆의 QR코드의 링크를 통해 준비된 카드(PDF)를 확인하고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금 감정(emotion)을 다양한 카드 속에서 찾아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미지(image)로 나의 느낌을 말 대신 담아낼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나온 질문(question)을 넘어 더욱 다양한 물음을 묻고 나눌 수 있습니다.

배워야 산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 5:1)



하나님, 배우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내게 1년 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무료 수강권이 생긴다면 어떤 것을 배우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할까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입학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를 잘 배워서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시작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작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쓰임 받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시작했다면,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것을 토대로 훈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장하는 제자는 배움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축구를 하길 원한다면, 축구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배운 기술들을 반복된 훈련을 통해 몸에 익혀야 합니다. 잘하고 싶은 만큼, 배움과 익힘이 필요합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는 탁월한 축구선수가 되길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발을 자유롭게 쓰는 선수가 되고자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왼발을 잘 쓸 수 있도록 반복훈련을 했습니다. 양발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신었습니다. 발을 씻을 때도, 공을 찰 때도 왼발부터 했습니다. 오른발보다 왼발 훈련을 1.5배 더 했습니다. 결국 양발을 자유롭게 쓰는 탁월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선 배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배우고, 훈련하며 이를 삶으로 익혔을까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배워야 했습니다. 세상에는 삶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삶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온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삶으로 익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익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삶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훈련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배우는 사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삶에 대해 배우고, 이를 훈련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배움과 훈련의 터널을 통과할 때,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제자의 길, 배움과 훈련입니다.



- ☑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하나요?



(1) 내가 이전에 못했지만, 지금 잘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그 과정을 소개해 주세요.

(2)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정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3)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결단하는 한 문장을 써봅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배우고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나 보통 아니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세요.



한 사람씩 기자회견의 주인공이 되어봅시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아보세요. 평소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거나 Q카드를 활용하여 질문해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새 학년이 시작되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난 친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인지, 난폭한 사람인지, 재밌는 사람인지, 조용한 사람인지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내가 친절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싶다면 매너 있는 말, 배려하는 말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말과 행동은 사람을 알아가고, 나를 알리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을 곁에서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와 같은 가르침은 훌륭한 종교지도자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나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자신의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는 말씀 등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자신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 등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아니신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신이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한다면, 그 친구와 함께 다닐 수 있을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엔 모두가 그 말씀을 더 분명히 이해하고,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 이상의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해결하기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셨고,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일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놀라운 기적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기적과 더불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사람이 보여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임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곧 제자입니다.



- ☑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했나요?
- ☑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2) 내가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3)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나요?



하나님, 하나님으신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요한복음 14장 9-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 14:9)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나만의 해시태그 3개로 자신을 소개해 보세요.

#

#

#

그 해시태그가 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인지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지 알아볼까요?



사람에겐 삶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발견들은 삶에 대한 갈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 탐구와 연구 등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동안 알아낸 지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탐구를 통해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 지구를 넘어 우주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측하고 상상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단 한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공연 무대의 커튼 뒤에 사람이 숨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객들은 커튼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추측해 보고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커튼 뒤에 있는 사람이 커튼을 찢히고 나와 자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방법밖엔 없습니다. 사람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있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기뻐하셨고, 그 일을 역사 속에서 진행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커튼을 찢히고 역사 속에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약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도와주시는 하

나눔을 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담겨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누구도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궁금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산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온 세상을 찾아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구약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 신약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해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성경을 읽어보세요. 특히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며 읽을 때, 하나님을 아는 가장 선명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 ✓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알아낼 수 없는 영역이 무엇인가요?
- ✓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1) 한 사람씩 특정인물을 따라하고 누굴 따라하는지 서로 맞춰 봅시다.

(2)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3) 예수님을 통해 바라본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들을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삼위일체? 자, 들어봐

마태복음 3장 16-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 3:16-17)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불리고 싶은 닉네임 혹은 애칭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불리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간 5살 아이에게 고등학생이 수학책에 나오는 함수를 설명해 주려 합니다.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주를 다녀온 우주비행사가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주에서 본 경이로운 광경을 말로 설명해 주려 합니다. 우주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설명과 이해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고백도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성경이 전하는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한 장면 속에 함께 등장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소리를 내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내려 오셨습니다(마 3:13-17).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며,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자신이 부활하고 난 후,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

는 성부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예수님),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부가 성자는 아니며, 성자가 성령은 아니며, 성령이 성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심으로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알려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셨습니다(엡 1:3-14). 서로가 구분되지만,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일하십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다양하고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계획하시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함께하시는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함께 일하십니다. 훗날 약속하신 대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 ☑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신가요?
- ☑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무엇인가요?



(1) 누군가와 함께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해 본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2)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각각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3) 오늘 배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연합 속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삼위일체의 신비와 우리를 향한 구원과 사랑을 더욱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 있어

요한복음 1장 1-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3)



하나님,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모두 눈을 감고, 여러분의 물건 중 하나를 몰래 선생님께 내어놓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것을 섞어 놓고, 눈앞의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 주인을 찾아봅시다.

모든 물건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그것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림은 그것을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그것을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작에는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 세상과 사람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요? 다양한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언대로 말씀과 행동, 특별히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당연히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맞을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리셨습니다. 세상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자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마 10:30; 6:32).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일 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사람의 몸과 영혼에 대한 최종적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마 10:28).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을 통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

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온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를 제외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피해자도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나아온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고 대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그 성분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말 씀으로 바람을 꾸짖으시고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우상숭배라 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힘 있는 사람, 돈, 이념, 유행을 하나님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만이 우상숭배를 멈추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 십니다.



☑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 온 세상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여러분은 무엇에/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받고 있나요? 온 세상의 주인,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1-10으로 표현해 보세요.

1				5					10

(2)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면, 어떠한 일을 하고 싶나요?
온 세상의 주님에게 간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3)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찾아 불러봅시다.

(ex. 왕이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등)



하나님,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게 해주세요.

미안, 할 수 없는 게 없어

마태복음 19장 26절, 누가복음 1장 3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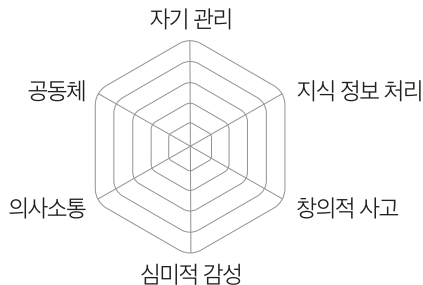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
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 19:26)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현재를 기준으로 나의 능력치를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치는 어떠할까요?



오락실에 가면 펀치 기계가 있습니다. 달려있는 주머니를 향해 저마다 힘껏 펀치를 날리면, 펀치의 세기가 측정되어 나옵니다. 사람마다 힘의 차이는 있지만, 기계가 측정 못할 힘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하는 것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사람마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할까요? 교회의 신앙고백인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크신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크신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마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교 기준이 없으면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맞지 않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영원한 것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만들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4:14; 요 6:58). 예수님은 시간 속으로 인간이 되어 오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시간을 넘어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을 이야기하실 수 있고, 영원한 것을 창조하실 수 있고,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오랜 역사에 걸친 연구를 통해 세상과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피조 세계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 사람들의 마음과 필요, 은밀한 중에 행한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역사 속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냈지만, 여전히 불가능한 일들도 많습니다. 다가오는 일들을 넉넉히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죄는 여전합니다. 세계 속에서 날마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질병, 악한 영, 자연 현상들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죄로부터 승리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은 약속한 것을 의도적으로 어길 때도 있고,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하여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제자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사람의 작음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하나님께 기대어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 ☑ 사람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 ☑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내가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은 무엇이 있나요?

(2) 지금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해 봅시다.



(3) 오늘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살게 해주세요.

의로운 사람을 찾고 있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 4:15)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했던 가장 선행 일을 자랑해 보세요.

내가 마주했던 가장 선행 일을 소개해 보세요.

한 사람의 자랑이 끝나면, 모두가 격려의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일까요?



세상엔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은 일, 가치 있는 일을 행한 사람들을 보며, 사회에서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사람,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을 향해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이나 갈망,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항상 완전하게 옳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의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셨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죄가 없는 삶이고,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히 4:15).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 살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순종하셨고, 온전히 의롭게 살아가셨습니다(빌 2:8).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의로움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시 종교지도자들보다 더욱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적으로 의롭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의 위선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두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겐 사람들이 닮아갈 수 있는 부분과 닮아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초월적 능력은 사람이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닮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만큼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닮아가고자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닮아가려 할수록 온전히 닮아갈 수 없는 사람의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우리의 불의함, 즉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입혀지는 놀라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의롭지 않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의로운 자로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의롭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실제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를 통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믿는 자도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실제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 예수님은 ☐☐☐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 예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변화시켜가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1)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요?

(2)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느끼는 감정이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3) 이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어떤 의로운 일을 하고 싶나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염려 마, 공정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 16:27)



하나님, 공정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선을 심는 사람이 되게해주세요.



재판장이 되어 다음의 사람들을 판정해 주세요. 1~10까지 점수를 매겨보고,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ex) 배가 고파 빵을 훔친 아이

전쟁에서 윗사람의 명령을 거역했지만 승리한 군인
건너편 환자를 구하기 위해 교통신호를 위반한 의사
중요한 약속을 해놓고, 급한 일이 생겨 지켜지 못한 친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하실까요?



판사는 의인을 보호해 주고 악인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판사가 악인의 죄악은 눈감아주고 의인의 선행은 무시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들은 판사에게 분노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판사에게 공정함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사람들 간의 문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묵묵히 선을 행하는 의인들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함에 주저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공정한 분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을 평가하시고, 삶에서 맺은 열매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겐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법들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준 삼아 예수님 앞에서 삶을 평가받을 것입니다. 마음과 삶으로 이 법을 따라 살았는지, 이 법에 어긋난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책임을 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공정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무시한 채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정의가 무시된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풀어진 용서는 정의로운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죄를 덮으려 하고 감추려 하는 자들은, 죄를 드러내시고 책임지게 하시는 예수님을 마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하신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면 감추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공정하신 예수님 앞에서 마주하게 될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묵묵히 선한 일을 심어 보세요. 공정하신 예수님은 남몰래 수고한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놓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심어놓은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선을 심어가는 것, 공정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입니다.



- ☑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은 자신이 □□ □□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공정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 (1) 운동 경기에서 공정하지 못한 심판을 본 경험이 있나요? 그때의 마음을 표현해 봅시다.



- (2)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선한 일이 있나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공정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며, 어떠한 마음일까요?



- (3) 공정하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감추려 했던 것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선행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공정하게 세상을 다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따라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여기 있어

로마서 5장 8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일 4:10)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사랑하고 있는 순간을 생각해
보고, TOP3를 발표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세상의 많은 이야기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책과 영화, 노래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져있거나, 사랑이 식어가거나, 사랑을 찾고 있거나, 사랑을 외면하거나, 사랑이 시작되거나, 사랑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 이야기가 많을까요? 사람들이 참된 사랑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누군가에게 받고 싶어 하고,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망하는 것만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하는 한계를 느끼며 아파합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끝이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계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요? 끝을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한 우주와 비교할 때, 사람은 우주의 먼지라고 불려도 민망할 정도로 작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토록 작은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머리 돌 곳 없이 이리저리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시며,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며,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왔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오히려 부활은 당연합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으실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지극한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정도로 깊고 높은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진한 농도의 사랑이었습니다.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품이 넓은 사랑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심으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분명한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밝히 드러낸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 사랑을 알아가고, 맛보는 삶입니다. 그 사랑에 매여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 하나님은 우리를 □□하십니다.

☑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은 무엇이었나요?



(1) 나는 사랑받을 때 어떤가요? 그때의 기분을 이미지 카드로 표현해 봅시다.



(2) 내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지 카드로 표현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십씨 몇 도로 느끼고 있나요?



(3)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걱정 마, 하나님이 돌보시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하나님, 돌보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의 나를 만나러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린 나'와 일주일 동안 생활한다면 어떻게 '어린 나'를 돌봐주고 싶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까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린 소가 뿔이 나기 시작하면, 그 부분이 매우 간지러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때 비빌 언덕이 있으면 그 곳에 머리를 비비면서 그 시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 때 의지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필요합니다. 비빌 언덕이 없다면, 어려운 상황들을 홀로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비빌 언덕이 있나요? 누군가 우리의 삶에 비빌 언덕이 되어 주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언덕인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언덕이거나 비비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언덕은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영원한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어린 탄식과 한숨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밤에는 급격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추위에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건너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했지만,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에 가나안 땅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신 8:4).

예수님은 자신을 선택한 목자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난처한 상황들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목숨을 잃을 뻔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악한 영을 내어 쫓을 수 없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부 하나님께로 가야 함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여전히 제자들을 돌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교회들 속에 성령을 통해 함께하셨고 지금도 성령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돌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강합니다. 함께하시며 돌보시는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배로 폭풍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폭풍우는 당장이라도 배를 덮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돌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폭풍우를 덮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의 비밀 언덕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돌보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택 ☐☐가 되어주십니다.

☑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안심하라고 하셨나요?



(1) 누군가를 돌본 적이 있는지, 그때의 경험이 어땠는지 나눠보세요.

(2)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했던 순간에 대해 표현해 보세요.



(3) 오늘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부분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돌봄을 구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돌보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Mission complete!

누가복음 22장 29-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눅 22:29-30)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주인공이 나’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만들어 보세요. 단 미래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내가 꿈꾸는 목적을 바탕으로,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어떤 소식이나 를 기다리고 있을지 전해 봅시다.

NewsLETTER



NewsLETTER



NewsLETTER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미래를 알기 위해선, 그 사람의 꿈을 알아야 합니다. 꿈은 앞으로 그가 이루어갈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겐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알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세상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복주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첫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속

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휘청거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품으셨던 꿈을 완성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실 넉넉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고, 진행하고 계시며, 완성을 약속하셨기에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배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완성의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과정은 다 예측할 수 없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와 함께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 ☑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 □□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1)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 봅시다.



(2)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3)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한 문장 기도를 각자 만들어 봅시다.



오늘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만든 한 문장 기도를 드리며 마무리합니다.

MEMO

MEMO

MEMO

FOLLOWER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발행일 2024. 12.
발행인 김두범
편집인 조성환 신혜경 이상지
편집위원 정승환 오선주 이반석 이태진
감수 박찬웅 양성진
그림 김유림
교정교열 조윤정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교육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전화 02-399-4371, 4367
디자인 및 제작 디자인통

〈비매품〉